

시황

정책 모멘텀과 함께, KOSDAQ의 새로운 도약

김정윤 jungyoon.kim@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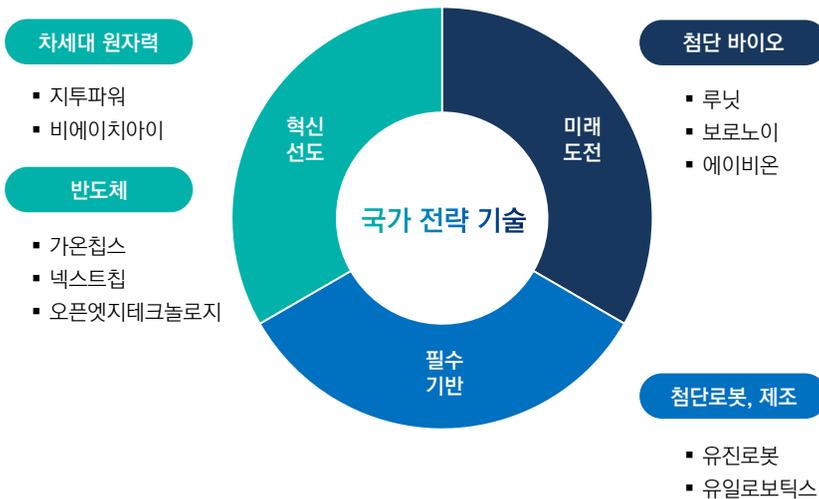
Investment Summary

국가전략기술/첨단산업 정책 수혜에 집중할 하반기 KOSDAQ

- 신정부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전략기술/첨단산업 육성·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 모멘텀 증폭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 자세히 살펴보면 KOSDAQ은 정부 정책 드라이브가 강하게 유입된 시기에 좋은 성과를 기록. 그리고 공통적으로 집권 2년 차에 그 진가가 발휘되면서 KOSDAQ 지수 내에 정책 수혜주에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가 첨단/전략기술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23년 하반기는 정부 추진 국가 전략기술/첨단산업 정책 수혜주에 주목할 것을 권고. 주요 수혜 산업은 1) 반도체, 2) 첨단 로봇, 3) 첨단 바이오, 4) 차세대 원자력으로 선정
- 23년 하반기 KOSDAQ 밴드 780 ~ 990p 제시.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 덜어 놓고 이후 정책 모멘텀에 힘입은 상승 기대

* 5월 11일 “2023년 하반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통합본에서 최초 발간

하반기 KOSDAQ 관심 산업 및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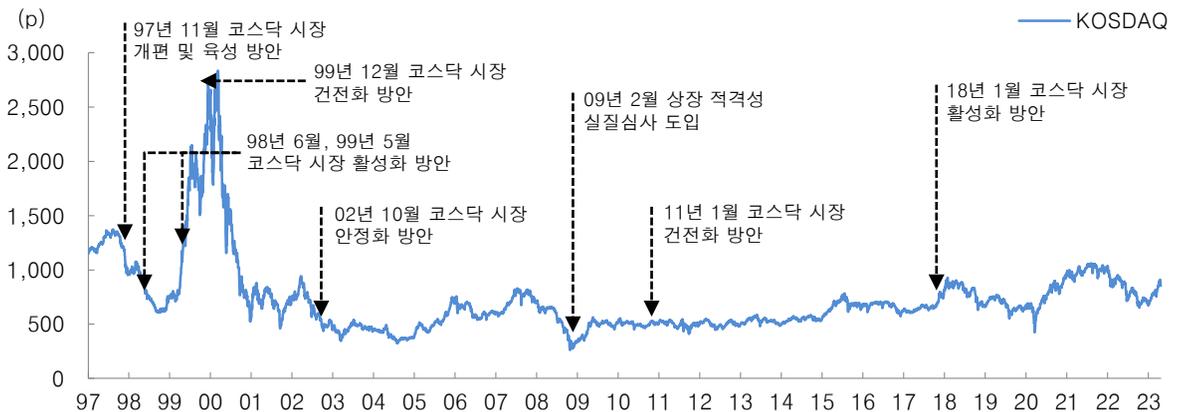


정책 모멘텀으로 투자 매력도 높아질 KOSDAQ

'23년 하반기: 국가 전략기술/첨단산업 정책 수혜주에 주목

- 과거 KOSDAQ 투자 = 테마주 투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이후 KOSDAQ은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신성장산업 지수로 탈바꿈 중
- '90년대 후반 닷컴버블 이후 KOSDAQ 지수는 긴 시간 동안의 박스권을 거치고 '21년에는 약 20여년 만에 1,000p를 돌파
-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신성장산업 모멘텀에 힘입어 KOSDAQ이 충분히 지수대 레벨업이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 '20~'21년에는 코로나19 창궐로 증시 폭락이라는 기저도 존재했으나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춘 신성장 산업 지원 정책 모멘텀도 증시 레벨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
- 신정부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전략기술/첨단산업 육성·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 모멘텀 증폭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자세히 살펴보면 KOSDAQ은 정부 정책 드라이브가 강하게 유입된 시기에 좋은 성과를 기록. 그리고 공통적으로 집권 2년 차에 그 진가가 발휘되면서 KOSDAQ 지수 내에 정책 수혜주에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
- '23년 하반기는 정부 추진 국가 전략기술/첨단산업 정책 수혜주에 주목할 것을 권고

KOSDAQ 장기 추이 및 주요 시장 활성화 방안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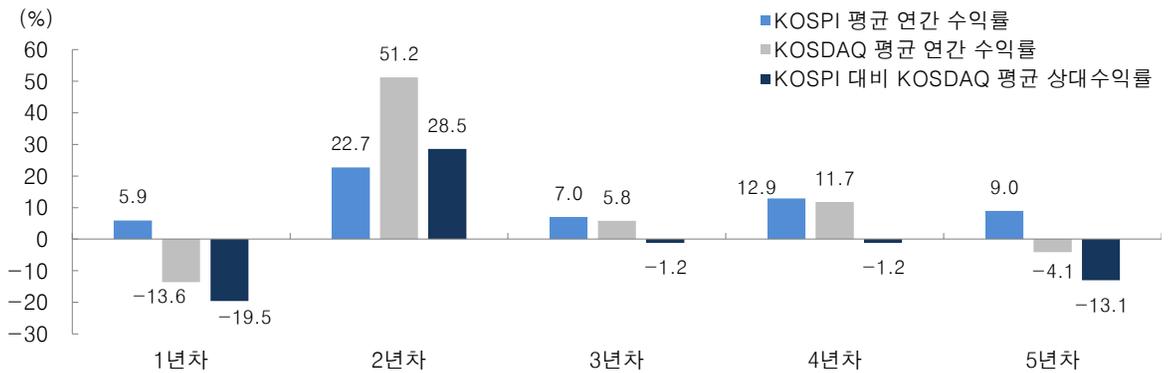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집권 2년 차에 기대되는 정책 모멘텀

집권 2년 차에 KOSDAQ 강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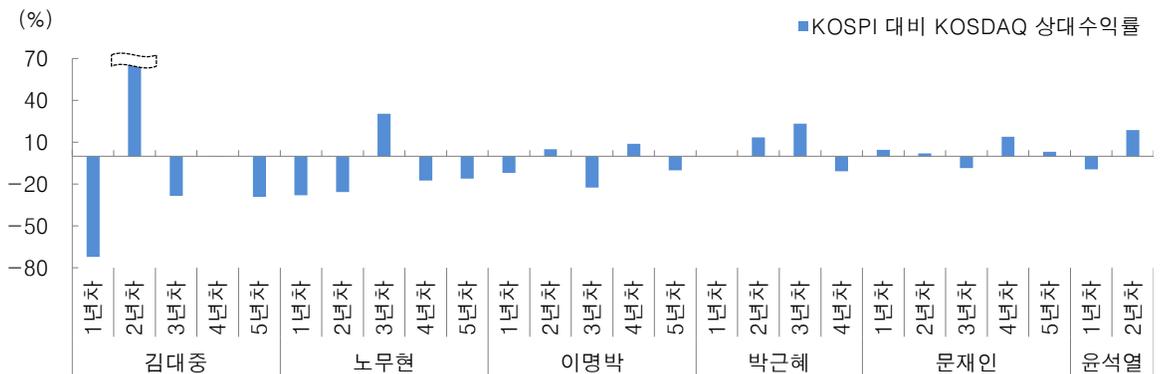
- 정책 수혜주 투자에 있어서 집권 2년 차의 의미는 중요. KOSDAQ의 경우 집권 2년 차에 KOSPI 대비 Outperform한 사례는 과거 5개 정권 중 4번. KOSPI 대비 상대수익률은 2년 차에 평균 28.5%p, 임기 5년 중 가장 높음. 99년 닷컴버블로 김대중 정권 시기를 제외하면 KOSDAQ 상대 수익률은 1~5년차까지 각각 -9%, 2.7%, 5.7%, -1.4%, -7.7%. 2~3년 차에 상대적 강세 기록
- 집권 1년 차가 정책 구상의 시기라면 2년 차 부터는 내용 구체화 및 집행 준비가 가시화되는 국면으로 더욱 더 정책 수혜주에 주목할 필요

집권 연차별 KOSPI, KOSDAQ 수익률. 집권 2년 차에 특히 KOSDAQ 강세 뚜렷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정권별 집권 연차에 따른 KOSDAQ 상대수익률. 2~3년 차에 KOSDAQ 상대적 강세 관측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과거 정부 정책 수혜주는 집권 2~3년 차에 강세 전개

'90년대 후반, 금융위기 전 벤처산업 정책 최대 수혜 받은 IT.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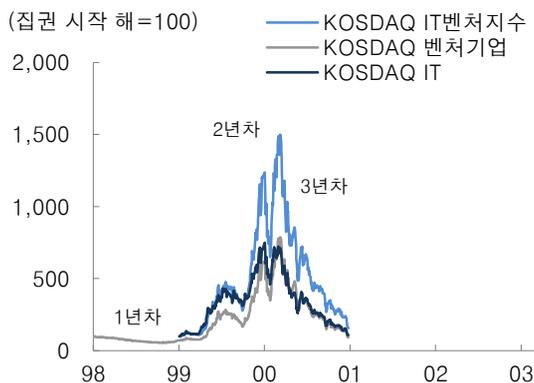
- 닷컴 신드롬 아래 정부의 벤처산업 활성화 정책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시너지의 결과물로 '90년대 후반은 IT 업종의 활황기였음. 버블이라는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04년부터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이어받고 IT839 전략까지 가세하며 IT는 재도약
- '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저탄소 녹색정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며 녹색성장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 신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 그린뉴딜 지수는 '09년, '10년 각각 102%, 30% 수익률을 기록해 KOSPI, KOSDAQ 모두 큰 폭 Outperform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IT 육성 정책 집중. 이후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중심

대통령	주요 정책	대통령	주요 정책
김대중	98년 5월 벤처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시안	이명박	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 선포
	98년 10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시행		09년 1월 녹색뉴딜 정책 수립
	99년 3월 사이버코리아21		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00년 벤처·인터넷산업 활성화 방안		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노무현	03년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사업 추진		10년 10월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전략
	04년 2월 IT839 전략 계획		11년 1월 녹색성장체제 강화 방안
	04년 12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05년 코스닥본부-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술평가 업무 위탁 계약		
	06년 2월 u-IT389 전략		
	06년 3월 u-Korea 정책		

자료: 국가 기록원,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김대중 정부 벤처/IT 육성 정책 수혜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KOSDAQ IT벤처지수, IT지수는 99년=100 기준

노무현 IT893/바이오, 이명박 녹색성장 수혜



자료: Data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과거 정부 정책 수혜주는 집권 2~3년 차에 강세 전개

'10년 중반 핀테크와 중국소비주 활황.'17년부터 4차 산업혁명 정책 본격화

- '10년 중반은 창조경제 정책 추진에 따라 금융과 기술의 조화로 핀테크 업종 활성화
- '14년에 한중 FTA 타결 이후 新차화정(차이나, 화장품, 정보채널)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化妆품을 중심으로 중국 소비주들이 급격한 상승세가 전개
- '17년부터 4차 산업혁명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되어 '18년 글로벌 증시 급락 전까지 인터넷과 2차전지 산업지수 급등세 부각.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소부장 전략,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로 4차 산업혁명 정책들이 더욱 가시화

박근혜 정부 정책 수혜였던 창조금융, 내수주. 문재인 정부부터 4차 산업혁명 정책 본격 활성화

대통령	주요 정책	대통령	주요 정책
	13년 5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17년 11월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수립
	13년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		18년 6월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박근혜	14년 8월 창조금융 활성화 위한 금융혁신 계획	문재인	19년 8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14년 9월 정부 3.0 발전계획		20년 2월 소부장 전략 2.0
	14년 11월 한중 FTA 타결		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2년 10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윤석열	22년 12월 신성장 4.0 전략		
	23년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자료: 국가 기록원,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창조금융-핀테크, 한중 FTA-중국 소비주



자료: Data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차 산업혁명-인터넷, 2차전지 산업



자료: Data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DAQ은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걸맞게 체질 개선

통신서비스, 건강관리 업종 집중도에서 벗어나 업종 분포도 다각화

-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틀을 따르고 있으나 코로나1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이라는 대대적인 변화 속에 국가전략기술/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공략 중
- 기술패권 경쟁이 단순 기술 확보가 아닌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선제적인 기술 확보 및 투자로 초격차 성과 창출이 요구되는 시기
- 이러한 추세 변화에 맞춰서 주식시장 업종에도 변화가 나타남. '00년대 KOSDAQ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을 보면 통신서비스 시가총액 비중은 25.4%로 여타 업종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업종 쏠림 현상 관측. '20년에는 시가총액 1~4위 종목들이 모두 건강관리로 11.3%의 비중을 차지
- '23년 상위 10개 종목의 업종 구성을 보면 IT가전 8.7%, 화학 4.0%, 건강관리 5.3%, 소프트웨어 1.5%로 과거 통신서비스, 건강관리 쏠림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걸맞게 업종 분포도가 이전보다 다각화되는 모습

과거 통신서비스('00), 건강관리('20) 집중도에서 벗어나 4차산업혁명에 걸맞게 업종 분포도 다양화

	'00			'20			'23		
	종목	시가총액 비중	업종	종목	시가총액 비중	업종	종목	시가총액 비중	업종
1	KTF	16.2	통신서비스	셀트리온헬스케어	6.4	건강관리	에코프로비엠	6.2	IT가전
2	국민신용카드	7.0	은행	셀트리온제약	2.2	건강관리	에코프로	4.0	화학
3	한국통신엠닷컴	4.9	통신서비스	씨젠	1.3	건강관리	셀트리온헬스케어	2.8	건강관리
4	기업은행	3.5	은행	알테오젠	1.3	건강관리	엘앤에프	2.5	IT가전
5	LG유플러스	2.3	통신서비스	HLB	1.3	조선	HLB	1.0	건강관리
6	SK브로드밴드	2.1	통신서비스	SK머티리얼즈	1.0	디스플레이	셀트리온제약	0.8	건강관리
7	SBS	1.9	미디어,교육	에코프로비엠	0.9	IT가전	카카오게임즈	0.8	소프트웨어
8	아시아나항공	1.2	운송	카카오게임즈	0.9	소프트웨어	JYP Ent.	0.8	미디어,교육
9	쌍용정보통신	1.2	소프트웨어	펠어비스	0.9	소프트웨어	오스텀임플란트	0.7	건강관리
10	엔씨소프트	0.8	소프트웨어	케이엠더블유	0.8	IT하드웨어	펠어비스	0.7	소프트웨어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現 정부 정책 기조는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부각되는 국가 첨단/전략기술 중요성

- 정부는 '22년 10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미래상으로 반도체, 첨단 바이오, 2차전지 등을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이후 첨단 산업 초격차 확보, 수주 확대로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한 신성장 4.0전략을 발표. 올해 들어서도 국가첨단육성전략,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하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 증시에 정책 모멘텀 훈풍이 부는 '집권 2년 차 효과'를 기대하며 '23년 하반기 주요 수혜 산업은 1) 반도체, 2) 첨단 로봇, 3) 첨단 바이오, 4) 차세대 원자력으로 선정

국가전략기술/첨단산업 관련 주요 정책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정부 정책 모멘텀이 집중될 12대 국가전략 기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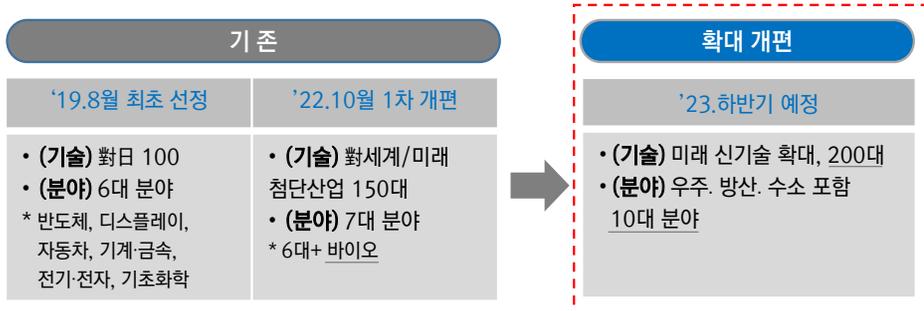
정책 모멘텀 기대 업종 1) 반도체

반도체 턴어라운드 예상된다면 당연히 소부장도 같이...

- '23년 1~2분기 반도체 업황 저점 통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필연적으로 따라갈 것.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자국 내 첨단산업 관련 핵심 소부장 경쟁력 확보는 정부 정책의 중심에 위치할 수 밖에 없어 4월에는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도 인공지능, 모빌리티 등 여타 첨단산업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정부 정책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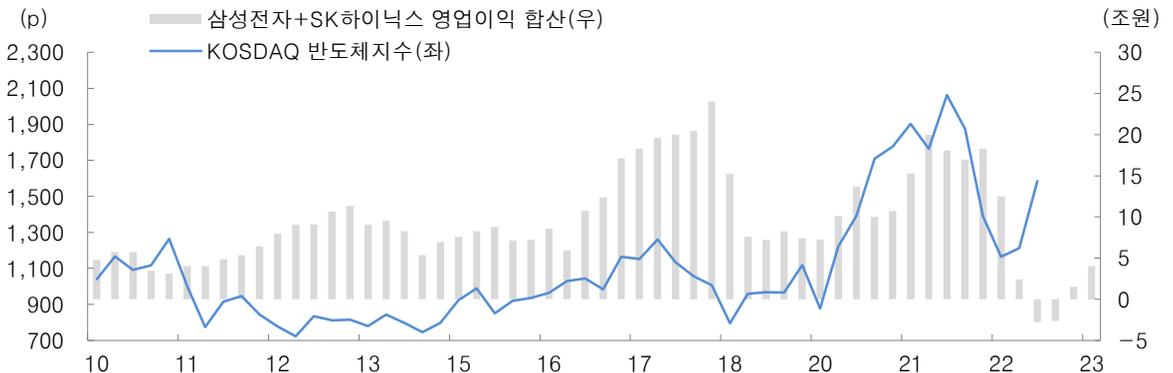
올해 하반기에 첨단소부장 확보 정책 동력 기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방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반도체 소부장 기업 다수 포진된 KOSDAQ 반도체지수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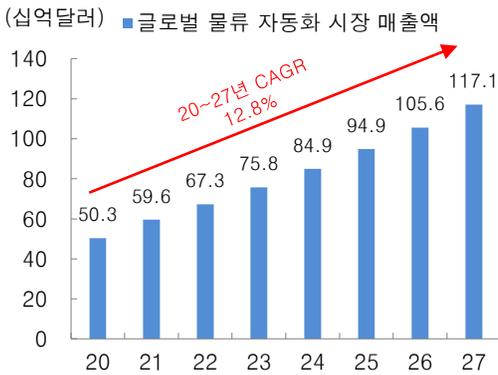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정책 모멘텀 기대 업종 2) 첨단 로봇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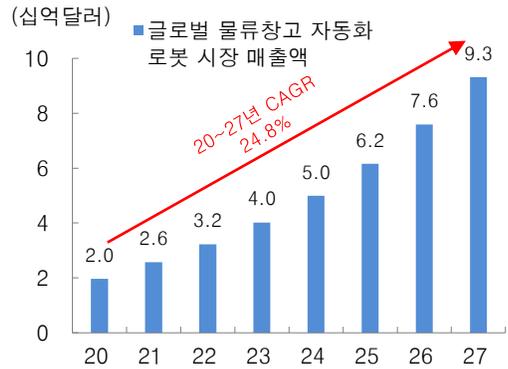
- 4차 산업 혁명 속에서 제조업은 현재 디지털 전환은 이미 시작.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중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첨단 로봇 제조, 사용 활성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 공장 구축/고도화, 로봇 등의 분야에서 올해 1,462억원 지원할 계획
- 물류 시장에서 첨단 로봇 사용 확대 기대. 정부는 스마트 물류 4.0 후속조치로 올해 2월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 차세대 물류 서비스 구축 계획 가시화.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장과 관련 로봇 시장 매출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에서 산업용 및 스마트 물류 로봇 산업에도 주목할 필요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장 매출 전망



자료: Mordor Intelligenc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물류창고 자동화 로봇 시장 매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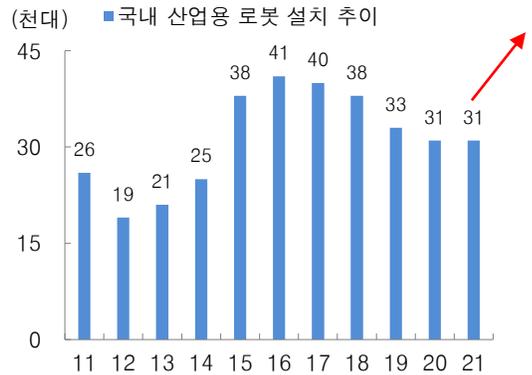
자료: Mordor Intelligenc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산업용 로봇 설치 확대 전망



자료: IFR2022,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국내 산업용 로봇 설치 추이



자료: IFR2022,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정책 모멘텀 기대 업종 3) 첨단 바이오

그림자에 가려진 바이오헬스. Again 2017?

-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올해 시장의 관심에서 다소 소외. 반면에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수출 활성화 전략 등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음
- 특히 이를 살펴보면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수출에 큰 중점을 두고 있음. 더불어 '23~'27년 제 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서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을 위한 만반의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주식시장에서 움직임이 주춤했던 제약바이오 업종이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기지개를 펼 것으로 기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신약 개발과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 정책에 주목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데이터 기반 의료 서비스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첨단 융복합 기술(스마트병원, 의료AI) 확산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확대 및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과 의약품 수출을 22년 82억달러에서 27년 160억달러로 글로벌 6대강국 실현 - 국가신약개발사업(21~30년, 2.2조원) 지속 지원하고 신약 개발에 1조원 K-바이오백신 펀드 추진 - 의료기기 수출 21년 86억달러에서 27년 160억달러로 의료기기 수출 5위 국가 달성 -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로 의료서비스 수출 회복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장비 등에 디지털 기술 활성화로 신시장 창출 - 데이터, AI 기술을 통해 차세대 항체약품 개발 가속화 - 데이터, AI 기술 활용한 분야별 전문의료진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자료: 보건복지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계획 추진 방향: 혁신 신약 글로벌 본격 진출

	제1차 계획(2013~2017)	제2차 계획(2018~2022)	제3차 계획(2023~2027)
추진 방향	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바이오산업 도약	혁신 신약 글로벌 본격 진출
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약산업법 제정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도입 - 제약 특화 펀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증대 -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미국, 유럽 선점 - 코로나19 대응 - 기술수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수출 증대 - 신약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위한 대규모 투자 확대 - 융복합 신기술 선점

자료: 보건복지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정책 모멘텀 기대 업종 4) 차세대 원자력

원전을 수출주 관점에서 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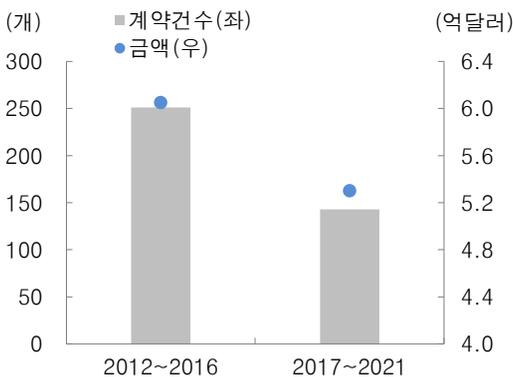
- 탄소중립 달성 목표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원자력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에서 빅딜 수주 릴레이 프로젝트로 원전 수출 지원 의지를 표명
- 한미 에너지당국은 원전 등 에너지 기술 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전력은 영국원자력청과 신규 원전산업 개발 MOU 추진.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IP분쟁 이슈로 관련해서 지켜봐야 할 사항임을 감안할 필요

추진 중인 원전 수출 프로젝트

	폴란드	체코	튀르키예
부지	폴란드 폰트노프	체코 두코바니	튀르키예 북부
노형	한국 APR1400(1.4GW 규모) 2~4기	1200MW급 원전 1기(향후 3기 추가)	1200MW급 원전 4기
참여업체	한국수력원자력 폴란드 민간발전사 ZE PAK 폴란드 전력공기업 PGE	입찰 경쟁: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	23년 1월 한국전력 예비제안서 제출

자료: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국내 원전 기자재 수출 급감한 상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원전 기자재 수출 동반진출, 독자수출 투트랙 추진

원전-기자재 투트랙 수출 전략

- 목표** 2027년까지 독자수출 원전 중소기업 100개 육성
수출 경험 유중소기업 40, 첫걸음 선정 60
- 일정** 23년은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추진.
24년부터는 신규예산 확보 추진
- 산업부** 반기별로 원전 기자재 수출지원 이행실적 점검,
예상당국과 협의해 원전 기자재 수출 전용예산 증액 추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3년 하반기 KOSDAQ 밴드 780 ~ 990p 제시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 덜어 놓고 이후 정책 모멘텀에 힘입은 상승 기대

- 23년 하반기 KOSDAQ 밴드 780 ~ 990p 제시. 하단은 780p는 PER 16.94배 x EPS 46.15p.
- 현재 KOSDAQ은 연초 이후 급등과 이익전망치 하향조정으로 PER-EPS 괴리율 확대 국면. 과거 12개월 선행 EPS 하락, 12개월 선행 PER 상승하는 괴리율 확대 국면 당시 밸류에이션 변화 적용. 12개월 선행 PER 단기 고점까지 도달 이후 되돌림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PER 14.7% 하락.
- 하락률을 올해 KOSDAQ PER 고점 19.85배에 반영. EPS는 올해 1분기 저점 수준

KOSDAQ 12개월 선행 PER, EPS 괴리율 확대 국면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괴리율 확대 국면에서 급반등한 PER은 평균 -14.7% 되돌림 발생

날짜	12개월 선행 PER	날짜	12개월 선행 PER	날짜	12개월 선행 PER
2006-07-18	7.79	2014-04-09	11.53	2021-05-24	16.7
2006-09-19	11.06	2015-07-24	18.6	2021-08-31	19.47
2006-10-09	9.56	2015-09-08	14.58	2021-10-06	16.89
고점 이후 되돌림	-13.6%	고점 이후 되돌림	-21.6%	고점 이후 되돌림	-13.3%
2012-12-21	10.1	2018-10-29	13.51	2023-01-02	11.96
2013-05-28	12.48	2019-01-31	17.48	2023-04-18	19.85
2013-06-25	10.27	2019-03-04	16.23	PER 하락 평균	-14.7%
고점 이후 되돌림	-17.7%	고점 이후 되돌림	-7.2%	예상	16.94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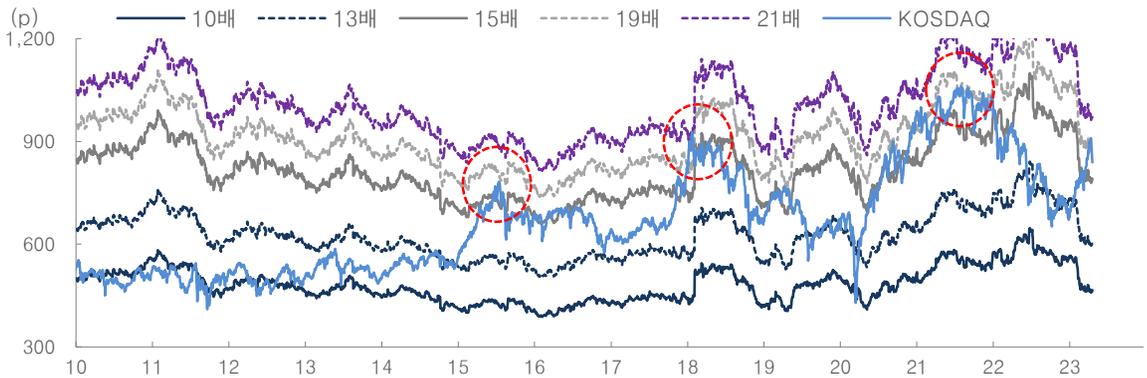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3년 하반기 KOSDAQ 밴드 780 ~ 990p 제시

Overshooting 발생시 1,000p 도달 가능

- 상단 990p는 PER 19배 x EPS 52.02p. 과거 PER-EPS 괴리율 확대 국면 후반부에는 PER 재도약과 EPS 상승전환 발생. EPS 저점권에서 1차적으로 평균 12.7% 상승
- 이를 올해 1분기 EPS 저점 46.15p에 적용. PER 19배는 밸류에이션 밴드상 '15년 KOSDAQ Re-rating 이후 주요 상단 역할
- KOSPI대비 KOSDAQ 상대 PER은 1.49배로 '15년 Re-Rating 이후 평균 1.53배에 아직 못 미침. KOSPI대비 KOSDAQ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과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며 상승 여력 존재

KOSDAQ 밸류에이션 밴드. 19배가 주요 상단 역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DAQ/KOSPI 12개월 선행 상대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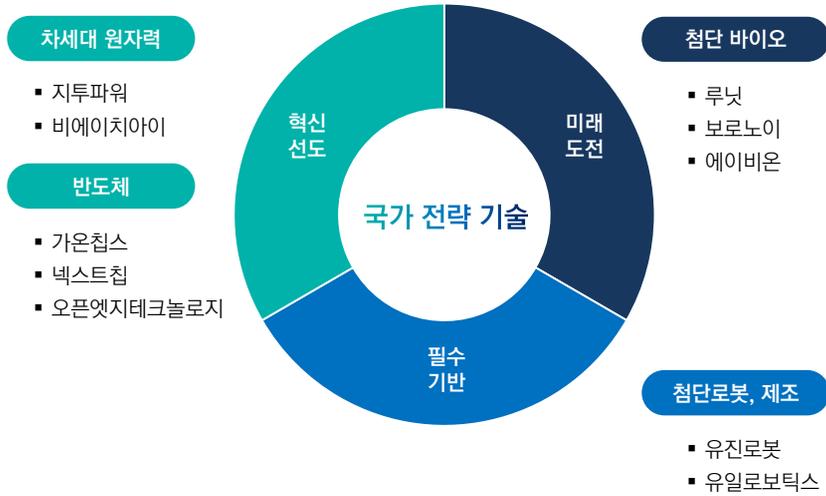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투자전략] 국가전략기술 정책 모멘텀 기대되는 관심 종목 10개 제시

수혜 기대 산업: 반도체, 첨단 로봇,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하반기 KOSDAQ 관심 산업 및 종목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하반기 KOSDAQ 관심 종목 10개 제시

코드	종목	핵심 사업
A399720	가온칩스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 위치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디자인솔루션 기업
A396270	넥스트칩	ADAS/AD(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자율주행)에 필요한 지능형 카메라 영상처리 및 인식용 시스템 반도체 개발
A394280	오픈엠티테크놀로지	AI 기술을 엠티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반도체 설계 IP 기술 개발
A056080	유진로봇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구축 기업으로 청소, 물류로봇 등 완제품 로봇 개발, 판매
A090360	유일로보틱스	자동화시스템 및 산업용 로봇 사업 영위하며 스마트팩토리 사업으로 확대
A328130	루닛	의료 AI 기업으로 암 진단, 암 치료 결정 솔루션 제공하며 해외시장 진출 확대 중
A310210	보로노이	신약개발 전문 기업으로 신약 후보물질을 전기임상 이전에 기술이전
A203400	에이비온	동반진단 기반 항암제 신약 및 신약 후보물질 개발
A083650	비에이치아이	발전소에 필요한 발전용 기자재 전문기업으로 향후 원전 관련 수주 기대
A388050	지투파워	상태감시진단(CMD) 기술 기반 수배전반 제조, 설치, 원자력 발전 설비에 필요한 Q-Class 하반기 취득 예정

자료: Dart 전자공시, 각 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위 언급된 종목을 제외한 동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김정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